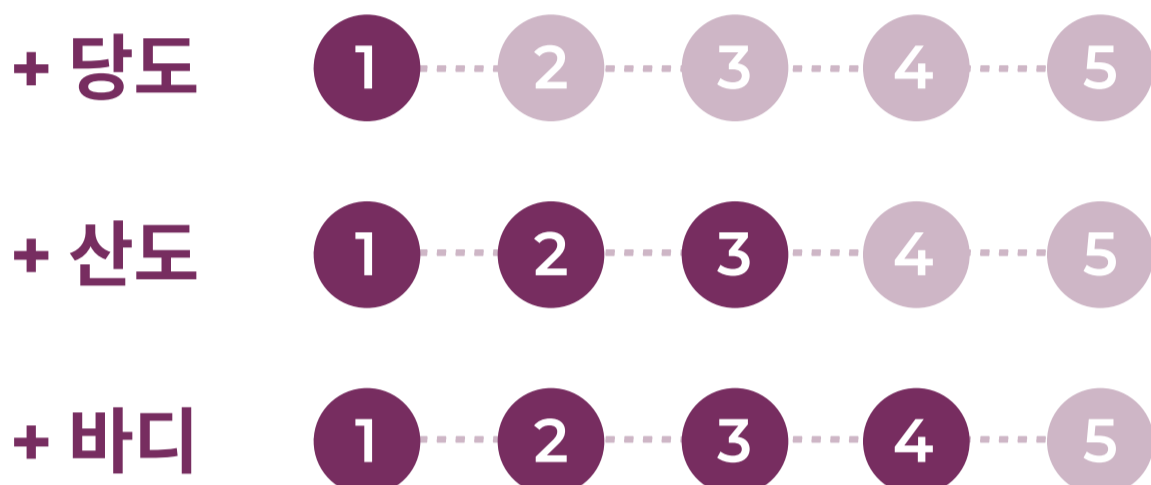




Louis Jadot Beaune 1er Cru
'Theurons' (Domaine Gagey)

루이자도 본 프르미에 크뤼 '퇴롱'

본의 프르미에 크뤼 중
가장 빼어난 와인 중 하나



Type	레드 와인
Country / Winery	프랑스 > 부르고뉴 / 루이자도
Grape Variety	피노누아 100%
Capacity	750ml
Food Matching	붉은 육류요리, 다양한 종류의 치즈

Information

‘퇴롱’은 본 시가지 뒤편 언덕의 네 군데 구획으로 이루어졌으며 본의 프르미에 크뤼 중 가장 빼어난 곳 중 하나로 꼽힌다.

루이자도 가문에서 183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던 포도밭이다. 아로마틱한 편이며 진한 과일 맛과 섬세한 질감, 미디엄 내지 풀 바디 스타일의 와인이다. 풍부하고 조밀하면서도 은은하게 다듬어진 탄닌과 과일의 균형감이 좋으며, 붉은 육류요리나 다양한 치즈와 잘 어울린다.

오크 배럴에서 12~15개월 숙성해 병입했으며 빈티지로부터 10~15년 더 두고 숙성할 수 있다.

Tip | 본은 꼬뜨 드 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마을 단위 생산지이다. 북쪽으로는 사비니, 남쪽으로는 뽀마르와 맞닿아 있으며 그랑 크뤼는 없지만 36개의 프르미에 크뤼를 포함한다. 362h에서 레드, 45h에서 화이트를 생산한다.